

2024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정답

1	①	2	③	3	②	4	④	5	③
6	③	7	④	8	⑤	9	⑤	10	③
11	②	12	①	13	①	14	②	15	①
16	②	17	②	18	④	19	④	20	④
21	②	22	④	23	⑤	24	①	25	④
26	⑤	27	④	28	④	29	②	30	③
31	⑤	32	②	33	②	34	⑤	35	③
36	④	37	③	38	①	39	⑤	40	①
41	⑤	42	③	43	①	44	⑤	45	⑤

해설

** 화법 **

1. [출제의도] 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강연자는 4문단에서 '산패'의 개념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강연과 관련한 질문을 제시하며 청중과 상호 작용은 하고 있지만, 청중이 강연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출제의도] 발표 내용 조직하기

강연자는 식중독의 발생 이유를 1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중독의 종류에 따른 식중독 발생률은 언급하지 않았다.

3. [출제의도] 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⑥에서 학생은 식품별 보관 방법의 공통점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을 떠올리고 있다. 이는 강연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신뢰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은 강연 내용을 유용한 정보라고 판단하여 주변에 알릴 것을 계획했으므로 강연 내용의 가치를 판단하며 들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학생이 '달걀'과 '채소류'는 '세균성 식중독'으로, '견과류'는 '곰팡이 독 식중독'으로 묶었으므로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며 들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채소류'와 같이 식품을 날것으로 먹었을 때 식중독이 생기는 다른 사례를 찾아본다고 하였으므로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점을 떠올리며 들었다고 볼 수 있다. ⑤ '견과류'와 같이 다량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산패가 일어날 수 있는 '들기름'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며 들었다고 볼 수 있다.

** 화법·작문 **

4. [출제의도] 대화 내용 이해, 평가하기

집에서 그려 온 그림으로도 상담이 가능한지 묻는 '학생 2'의 질문에 대해 ㉠에서 상담사는 미술 심리 상담에서 내담자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지만, 학생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

① 미술 심리 상담에서 그림 실력이 중요한지 묻는 '학생 1'의 질문에 대해 ㉡에서 상담사는 미술 심리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함으로써 '학생 1'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있다. ② ㉢에서 '학생 2'는

미술 심리 상담 방법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담사에게 대표적인 미술 심리 상담 방법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③ ㉣에서 '학생 2'는 '그림을 통해 내담자의 성장 과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상담사의 답변을 재진술하며 새롭게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신기하다는 자신의 느낌을 언급하고 있다. ⑤ ㉤에서 상담사는 물음의 방식을 사용하며 미술 심리 상담은 한 번만 받아도 되는지 묻는 '학생 1'의 의도를 자신이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대화 내용 조직하기

'학생 1'은 미술 심리 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묻고 있으나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미술 심리 상담이 필요한지를 묻고 있지는 않다.

② '학생 2'의 첫 번째 발화에서 일반적인 심리 상담과 미술 심리 상담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④ '학생 2'의 두 번째 발화에서 대표적인 미술 심리 상담 방법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

(나)의 2문단에서 미술 심리 상담사들이 사용하는 상담 방법을 '집-나무-사람 검사', '풍경 구성법', '동그라미 가족화'로 제시하여 나열의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① (나)의 1문단에서 미술 심리 상담사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개념을 비교의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② (나)의 1문단에서 미술 심리 상담이 어린아이에게 유용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비유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④ (나)의 2문단에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 미술 심리 상담에서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나)의 3문단에서 미술 심리 상담사가 갖춰야 할 자격을 제시하고 있지만,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7. [출제의도]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나)의 마지막 문단과 달리 고쳐 쓴 글에서는 미술 심리 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 높아짐에 따라'를 추가하였다.

① (나)의 마지막 문단을 고쳐 쓰기 전과 후 모두 미술 심리 상담사가 갖는 직업적 의미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나)의 마지막 문단에 사용한 접속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 수정하였지만, 미술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술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을 추천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 작문 **

8. [출제의도] 설득 글쓰기 내용 이해, 평가하기

3문단에 청소년들의 구독 경제 이용이 주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플랫폼에 편중되어 있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그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2문단과 3문단에서 구독 경제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구독료의 과도한 지출과 뇌 기능 저하가 나타나 있다. ③ 3문단에서 구독 경제의 이용 시간과 뇌 건강의 관련성으로, 자극적인 콘텐츠의 장시간 이용으로 인한 뇌 기능 저하가 나타나 있다. ④ 4문단에서는 구독 경제를 이용할 때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로, 구독 경제 이용 현황 점검과 올바른 콘텐츠 이용 습관 형성이 나타나 있다.

9. [출제의도] 설득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ㄱ-2는 청소년이 다양한 형태의 구독 경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ㄴ은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이용하면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ㄱ-2와 ㄴ을 활용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형태의 구독 경제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로 3문단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ㄱ-2는 청소년이 구독 경제를 이용하는 분야가 영상과 음원에 편중되어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ㄱ-2를 활용하여, 구독 서비스 콘텐츠의 장시간 이용이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의 근거로 3문단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② ㄴ은 구독 경제 시장의 확대에 1인당 결제 대금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ㄴ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구독 경제 이용이 구독료의 과도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의 근거로 2문단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③ ㄴ은 디지털 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뇌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디지털 디톡스의 실천 방법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ㄴ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줄여 청소년들의 뇌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4문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④ ㄱ-1은 청소년들이 여러 개의 구독 경제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ㄴ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마케팅 전략이 구독 경제 시장의 성장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ㄱ-1과 ㄴ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구독 경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으로 1문단에 보강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설득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독이 될 수 있다.'는 구독 경제를 과도하게 이용할 때의 문제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구독 경제만을 선택', '정해진 시간만큼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4문단에서 제시한 구독 경제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모두 언급한 것이다.

** 문법 **

11. [출제의도] 단어들의 의미 관계

1문단에서 하의어는 상의어보다 의미 성분의 수가 많다고 하였다. '조류'는 '참새', '제비', '뿔'에 대해서는 상의어이므로 '조류'는 '참새', '제비', '뿔'보다 의미 성분의 수가 적다.

① 1문단에서 하의어일수록 그 단어가 지시하는 지시 대상의 범위가 좁아진다고 하였다. '동물'은 '어류'에 대해 상의어이므로 '동물'이 지시하는 지시 대상의 범위가 '어류'보다 더 넓다. ④ 3문단에서 반의어는 나머지 의미 성분을 공유하고 단 하나의 의미 성분에 대해서만 차이를 가지는 단어라고 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의어이므로 '성별'이라는 의미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의미 성분을 공유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상의어와 하의어의 관계는 단어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하였다. '조류'는 '동물'에 대해서 하의어이고 '제비'에 대해서는 상의어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의 상대성을 파악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단어들의 의미 관계

[A]에는 '벽이나 못 따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의 의미로 쓰인 '걸다'의 반의어인 '떼다'가 와야 한다. [B]에는 '자물쇠, 문고리를 채우거나 빗장을 지르다.'의 의미로 쓰인 '걸다'를 사용한 '대문에 빗장을 걸었다.'나 '문에 자물쇠를 걸지 않았다.'와 같은 예문이 와야 한다. [C]에는 '기계 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다.'의 의미로 쓰인 '걸다'의 반의어인 '끄다'가 와야 한다.

13. [출제의도] 목적격 조사의 형태

㉠은 '소늘'로,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고, 앞말에 받침이 있어 목적격 조사 '을'이 실현되고 이어 적기한 형태로 나타난 경우이다. ㉡은 '쁘들'로, 앞말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고, 앞말에 받침이 있어 목적격 조사 '을'이 실현되고 이어 적기한 형태로 나타난 경우이다. ㉢은 '부터'로, 앞말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고, 앞말에 받침이 없어 목적격 조사 '를'이 실현된 경우이다.

14.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유형

㉠의 '끓는'은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 [끓는]으로 바뀐 후 유음화되어 [끓는]으로 발음되는데, 이때 뒤의 자음인 'ㄴ'이 앞의 자음인 'ㄹ'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 '닭장'의 겹받침 중 'ㄹ'이 탈락하였고, ㉣에서도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 '끓는'의 겹받침 중 'ㅎ'이 탈락하였는데, 이는 모두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에서 탈락된 음운은 'ㄹ'이고 ㉦에서 첨가된 음운은 'ㄴ'이므로 서로 다르다. ㉧㉨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 개수가 7개에서 8개로, 1개가 늘었고, ㉩, ㉪에서는 음운의 개수가 8개에서 6개로, 1개가 줄었다. ㉫㉬은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이 유음으로 바뀌고, ㉭은 파열음 'ㄷ'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졌다. ㉮에서 'ㄱ'은 파열음이고 'ㅍ'은 파찰음으로 조음 방법이 같지 않다.

15. [출제의도] 이어진문장, 안은문장

'그는 영수가 집에 간다고 했다.'는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 '고'가 쓰인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안은문장의 주어는 '그는'이고 안긴문장의 주어는 '영수가'이므로 안긴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 않다.

** 현대 소설 **

□ 출전 : 성석제, 「론도」

16.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글쎄, 보험회사 직원도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우리같이 순진한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은데.'라는 '그'의 말을 통해 보험회사 직원이 말한 방법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정비업체 사장은 '그'에게 '자기 권리를 찾는 거라니까요', '밥상을 찾아 먹을 때도 됐죠'라고 말하며 자동차 사고 후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 사고를 내고도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정비업체 사장은 '크게 박은 게 두 군데고 작은 건 네 군데'라고 수리해야 하는 부분을 언급했으나, '그'의 부주의함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④ 중년 남자는 '그'에게 자동차를 '같은 보험회사에서 고쳐도 좋을지, 선생님 의향이 어떠신지' 정중하게 물어보고 있다. ⑤ '우리도 자다가 소리가 팡, 하고 나서 나와 봤는데요.'라는 말을 통해 젊은 기사는 중년 남자가 사고를 내는 순간을 목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7. [출제의도] 작품의 맥락 이해

'그'는 상담원과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문답의 과정을 거치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인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

'역시 공기가 안 좋아. 예민한 사람들은 오래 있으면 좋지 않지.'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인지,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생각을 드러낸 것인지 정확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술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

공간적 배경은 '그'와 중년 남자의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 장소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에서 서술자는 상담원과 '그'의 대화를 인용 부호 없이 서술하면서, '그'가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기 위해 상담원에게 둘러대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에서 '목욕탕 천장의 환기 시설이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해주러 왔던', '팬을 사오면 갈아주겠다고 하던'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바탕으로 젊은 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라며 서술자가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추측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그'는 중년 남자가 일으킨 사고 후에, 중년 남자에게 '공손히 답례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생각하고 차를 수리하기 위해 돈을 들인 것이 '일주일도 안'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그'의 입장은 중년 남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입장이 다르지 않다.

** 인문 **

□ 출전 : 폴린 맥킨, 「언어철학」

20.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1문단에서 의미 내재주의는 '우리는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한다'고 하였으므로, 의미 내재주의자는 의미의 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문단에서 퍼트넘은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어 의미의 주관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미 내재주의자와 퍼트넘 모두 개인이 부여한 의미의 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의미 내재주의에서는 지시체에 대한 인식을 기술한 설명을 기술구라고 하고, 언어의 의미는 기술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②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인간이 대상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③ 의미 외재주의에서의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⑤ 인간의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의미 내재주의자와 달리, 퍼트넘은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지시체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21. [출제의도]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2문단에서 퍼트넘은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문단에서 퍼트넘의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은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동일해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려는 실험으로,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인식이 같더라도 두 지구의 물이 서로 다른 지시체이기 때문에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③ 퍼트넘의 관점에서는 생각과 느낌이 아닌, 지시체가 언어의 의미를 결정한다. ④ 퍼트넘의 관점에서는 두 물질이 다르면 기술구가 같더라도 다른 물질이다. ⑤ 퍼트넘의 관점에서는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2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퍼트넘은 의미가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으므로, 자연 상태에 있던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은 그 자체로 의미가 결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금속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언어 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한 단어의 의미는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은 서로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속성이 비슷하더라도 두 금속이 가진 실제적 본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A]에서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는 과학적 발견을 통해 알려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의 본질적 구조는 두 금속의 원소를 밝혀낸 과학적 발견을 통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③ [A]에서 소수의 전문가들은 대상의 실제적 본성을 구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을 구별할 수 있는 소수의 전문가는 두 금속의 차이를 인지하며 단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⑤ [A]에서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제적 본성의 발견과 이에 대한 구별은 과학자나 감별사와 같은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금속을 구별할 수 없었던 일반인들이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두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언어적 노동 분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3. [출제의도] 다른 견해와의 비교

<보기>는 외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도 분명히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관점으로,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퍼트넘의 주장과 상반된다. 따라서 <보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퍼트넘의 주장으로는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

① 단어의 의미를 구별할 때 외부 세계에 대한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난 것은 퍼트넘의 관점이다. ③ 단어의 의미를 아는 데 있어 외부 세계에 실재하는 대상의 본질적 구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은 퍼트넘의 관점이다. ④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한 의미보다 대상 그 자체를 아는 것이 단어의 의미 결정에 중요하다는 것은 <보기>의 관점과 관련이 없다.

24.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파악

④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의 의미로, '그는 착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의 '지니다'의 의미와 유사하다. ② '본래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몸에 간직하여 가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어떤 일 따위를 맡아 가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기억하여 잊지 않고 새겨 두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고전 소설 **

□ 출전 : 작자 미상, 「낙성비룡」

25.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노인은 이생에게 '이 차를 마시면 천리를 갈 것이니라.'라는 말을 남겼다. 따라서 이생이 천리를 가는 능력이 있어 노인에게 비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② '삼백 냥 은자를 통째로 주고도 사례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더니', '부인이 준 돈뿐인데 이를 적선하여 남을 도와주었다'라는 노인의 말을 통해 노인은 이생이 가진 돈을 모두 적선한 것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원하옵나니 저의 뉘를 인도하여 슬하에서 피시기를 원하옵니다.'라는 양 소저의 말을 통해 양 소저가 이 공 부부를 모시며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⑤ '우리 부부는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빈곤했는데 여기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넓고 비범한 작위를 받아 이렇게 화려하게 안거하니'라는 이 공의 말을 통해 이 공이 살아 있을 때와 달리 죽어서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6.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이해

㉠에서는 양 소저가 제사를 정성으로 받들지 못하고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육 년이 되었지만 소식을 알 길이 없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 못 했던 과거의 일을 근거로 자책하고 있다. ㉡에서는 이 공이 지금은 곤궁하나 장래에 복록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며 님을 인도해 달라는 양 소저를 만류하고 있다.

① ㉠에서는 노인이 당위를 내세워 이생을 설득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에서는 이생이 감정에 호소하여 노인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에서는 양 소저가 남편과 헤어져 지내는 상황과 이 공 부부에게 시부모의 제사를 정성으로 받들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언급하는 모습이 드러나지만, ㉠에서는 이생이 처한 상황과 노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언급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에서 이 공은 양 소저의 안위를 걱정하며 님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양 소저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에서는 이생이 노인의 안위를 걱정하며 노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27.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이 공 부부가 양 소저에게 차를 권한 것은 양 소저가 자신들이 있는 곳에 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일 뿐, 양 소저가 시련 극복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① ‘그대 저리 먹는 양에 양식도 없이 어찌 살아가려 하느냐?’, ‘본디 잠이 많으니’라는 노인의 말은, 노인이 이생의 잠이 많다는 점과 식사량에 대해 말하는 것에 해당한다. ③ 이생이 장인이 죽자 집에서 쫓겨나 ‘도로에서 방향’하고, ‘여러 날 고생하여 몸이 고단’한 것과 양 소저가 ‘시아비 집을 나간 지 육 년에 이르러 소식을 알 길이 없으니’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안내자를 만나기 전 이생과 양 소저가 겪은 시련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낙양 땅 청운사가 매우 부유하고 그 절의 승려가 의기가 많으니 죽히 안거하여 공부를 착실하게 할 수 있을지라.’라는 노인의 말을 통해 이생에게 시련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 출전: 노재호, 『민법 교안』

28. [출제의도] 전개 방식 파악

3문단에서 공유물 분할 방법을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으로 구분한 후, 3~5문단에서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① 6문단에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의의는 밝히고 있지만, 공유물 분할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2문단에서 공유물 분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 공유물 분할의 사례를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⑤ 공유물 분할의 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29.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3문단에서 협의에 의한 분할은 재판에 의한 분할과 달리 세 가지 분할 방법 중 임의로 그 방법을 공유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법원의 개입 없이도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① 1문단을 통해 공유물과 달리 공유물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을 통해 세 명 이상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관계로 남는 것도 허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을 통해 법원이 공유물 전체를 특정인이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공유물 전체를 소유하게 되는 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0.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

3문단을 통해 협의에 의한 분할과 재판에 의한 분할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분할 방법 모두 공유물을 분할적으로 나누는 분할 방법인 현물 분할을 통해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① 2문단을 통해 협의에 의한 분할은 당사자 전원이 참여한 협의를 통해 진행되며, 재판에 의한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 소송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을 통해 협의로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공유자가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을 통해 재판에 의한 분할은 분할을 희망하는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을 통해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에 협력하지 않아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3문단을 통해 법원이 토지를 현물 분할할 때에는 공유자들의 권리인 지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 면적을 조정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법원의 판결이 공유자들의 지분을 조정하여 현물 분할을 명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을 통해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 후 단독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치가 분할 전 소유 지분의 가치보다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갑이 대금 분할을 요청한 것은 토지 중 일부가 고압선 아래에 위치하므로 해당 부분의 토지를 분할받을 경우 현물의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어 손해 보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② 3문단을 통해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을과 병이 희망하는 현물 분할은 재판에 의한 분할 시 원칙이 되는 분할 방법이라 볼 수 있다. ③ 6문단을 통해 법원은 세 가지 공유물 분할 방법 중 분할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법원의 판결은 분할 청구자인 갑의 요청과 상관없이 재판에 따라 판단하여 현물 분할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3문단을 통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할해야 하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등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현물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법원은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하여 분할 면적을 조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아 현물 분할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과학, 기술 **

□ 출전: (가), (나) 리넷 존스, 『햅틱스』

32.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가)의 2문단에서 진동 촉감이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포스 피드백이라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왜 진동 촉감이 햅틱 장치가 만드는 물리적 포스 피드백을 대표하는지는 (나)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① (나)의 5문단에서 빠른 순응 타입II 수용체는 200~300 Hz 영역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 수용체는 기계 수용체 중에서 역치가 가장 낮

아 해당 영역 주파수의 미세한 자극 변화를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200~300 Hz의 진동을 가상 환경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한다. ③ (나)의 2문단에서 외부의 특정 자극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있는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고, 이 신호가 촉감을 담당하는 뇌의 체감각 피질로 전달되어 인간은 외부 자극을 자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가상 환경 사용자가 포스 피드백에 의해 물체를 만지고 있다고 인지하게 되는 과정에 해당한다. ④ (나)의 1문단에서 ‘햅틱’이라는 단어는 ‘촉각의’, ‘만지는’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라고 하였고, 인간의 촉각과 관련된 일련의 지각 과정과 가상 환경에서 가상의 촉감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를 햅틱스라고 하였다. 이는 촉각을 통해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가상 환경 기계 장치를 햅틱 장치라고 부르는 이유에 해당한다. ⑤ (나)의 2문단에서 인간의 손은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넓기 때문에 손에 가해지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촉각을 통해 가상 환경의 물체를 인지할 때 주로 사용자의 손을 통해 가상 물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33.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나)의 2문단을 통해 피부에 닿는 자극이 강해질수록 수용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가 커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부에 닿는 외부 자극이 강해질수록 활성화되는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① (나)의 3문단에서 ‘다른 기계 수용체와 달리 타입 I 수용체는 손가락 끝에 집중되어 있고 손목에서 팔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수가 줄어든다’라고 하였으므로, 신체 부위에 따라 타입 I 수용체의 분포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2문단에서 압전 소자는 음극과 양극을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압전 소자 내의 쌍극자들이 음극과 양극으로 끌려가거나 멀어지면서 인장과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므로, 압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 현상은 압전 소자 내부의 쌍극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3문단에서 ‘빠른 순응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지는 때에만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고 ‘느린 순응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포스 피드백이 특정 신체 부위에 계속해서 가해지면 느린 순응 수용체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4.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

(가)의 2문단을 통해 압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 정도는 가해지는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는 점과 전압의 조절만으로 압전 소자의 진동수와 진폭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손가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전압을 높이면 초음파 진동수로 진동하는 물체의 진동 진폭은 커져 ㉠을 ㉡로 나눈 값도 커지게 된다. 스퀴즈 힘은 진동 진폭을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로 나눈 값이 클수록 커지므로, 손가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전압을 높이면 스퀴즈 힘이 커져 진동 표면의 마찰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원래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

① (가)의 3문단을 통해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압축된 얇은 공기층이 형성되면 진동 표면의 마찰 계수가 감소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가 일정한 상태에서 진동 표면에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는 짧아진다. 스퀴즈 힘은 진동 진폭을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로 나눈 값이 클수록 커지므로, ㉠가 일정한 상태에서 진동 표면에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진동 표면의 마찰력이 감소한다. ③ (가)의 3문단을 통해 스퀴즈 필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이 1μm 이상이 되어야 한

다는 점과 마찰 계수가 일정하지 않은 물체를 만질 때에는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이 1 μ m 이상 유지될 때에는 스킨 필름이 형성되어 진동 표면의 마찰 계수가 감소하지만, ㉡가 0일 때에는 스킨 필름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진동 표면의 마찰 계수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을 1 μ m 이상 유지한 상태와 0인 상태가 반복되는 진동 표면을 만지게 되면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게 된다. ㉣(가)의 3문단을 통해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을 h 로 나눈 값이 클수록 스킨 힘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가 일정한 상태에서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커지면 스킨 힘이 커져서 진동 표면의 마찰력이 감소한다.

35. [출제의도] 생략된 내용 추론

(가)의 3문단을 통해 스킨 필름은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이 1 μ m 이상이고,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h 보다 클 때 형성된다는 점과 진동 진폭이나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을 h 로 나눈 값이 클수록 스킨 힘이 커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가상 물체를 만질 때, 가상 환경 시스템이 햅틱 장치의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면 진동 진폭에 따라 스킨 필름의 발생 유무나 스킨 힘의 크기가 달라져 진동 표면의 마찰력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사용자는 물체 표면의 거칠기를 알 수 있게 된다.

① 스킨 필름이 발생하면 햅틱 장치의 마찰력이 감소할 뿐, 햅틱 장치의 마찰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④ 스킨 힘은 스킨 필름에 작용하는 공기 유체의 힘이므로, 스킨 필름이 발생할 때 스킨 힘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⑤ 스킨 필름은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이 1 μ m 이상이고,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h 보다 클 때 형성될 뿐, 진동이 발생한다고 하여 스킨 힘의 크기가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36.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나)의 5문단을 통해 느린 순응 타입 I 수용체는 1Hz 이하의 저주파 영역의 자극에, 빠른 순응 타입 I 수용체는 30~40 Hz 영역의 자극에, 빠른 순응 타입 II 수용체는 200~300 Hz 영역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보기>의 ㉠에서 피실험자는 1Hz의 진동을 부드러운 촉감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느린 순응 타입 I 수용체가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피실험자들이 40 Hz의 진동을 약간 거친 촉감으로, 300 Hz의 진동을 다소 거친 촉감으로 인식한 것은 각각 빠른 순응 타입 I 수용체와 빠른 순응 타입 II 수용체가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물체의 부드러운 촉감과 거친 촉감의 구별은 감각 수용장의 넓이가 아닌, 감각 순응의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나)의 3문단을 통해 빠른 순응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지는 때에만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고 자극의 세기가 변하지 않으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3문단에서 타입 I 수용체가 많을수록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타입 I 수용체는 신체 부위에 따라 분포 정도가 다르다고 하였다. ③ (나)의 2문단에서 체감각 피질에서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신체의 피부일수록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⑤ (나)의 5문단에서 느린 순응 타입 I 수용체는 1Hz 이하의 저주파 영역의 자극에, 빠른 순응 타입 I 수용체는 30~40 Hz 영역의 자극에, 빠른 순응 타입 II 수용체는 200~300 Hz 영역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의 실험 결과 피실험자들은 10 Hz, 100 Hz, 500 Hz로 진동하는 물체의 거칠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의 실험 결과는 기계 수용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범위 이외의 진동 자극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파악

‘유사하다’는 ‘서로 비슷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성질이나 특성이 기준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의 의미를 지닌 ‘가깝다’와 바꿔 쓸 수 있다.

** 갈래 복합 **

□ 출전 : (가) 민우룡, 「금루사」
(나) 김창흠, 「그리운 외손녀」

38.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가)에서는 ‘어와 ~ 우습다’와 같은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아! 이처럼 ~ 알리겠는가?’와 같은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외손녀’와 사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글쓴이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② (나)는 ‘비너나 귀고리에 악착을 부리는 미운 습성’을 지닌 사람과의 차이를 밝히며 외손녀의 단박한 심정을 예찬하고 있다. (가)는 임의 외모를 예찬하고 있지만 ‘낙포선녀’와의 차이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③ (가)는 ‘저버리지 말게 하라’며 명령형 어조로 임이 자신을 다시 사랑해 주기를 바라며 대상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⑤ (가)는 ‘낙포선녀’, ‘편작’ 등의 고사 속 인물을, (나)는 ‘칠실녀’라는 고사 속 인물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39.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E]는 ‘오동됨에 비 떨어지는 소리’로 인해 꿈에서 깨어나게 된 화자의 상황과, ‘새벽 달빛에 작은 별’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한 채 꿈에서 깨어난 화자의 허망함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자연물을 활용한 것은 맞지만 임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B]는 ‘넓고’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천하에 동서’로 나뉘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화자와 임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③ [C]는 ‘이 불을 누가 끄리오’, ‘이 병을 누가 고치리오’라는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며 이별의 한을 풀어줄 사람이 임밖에 없음을 부각하고 있다. ④ [D]는 ‘나비를 말로 삼아’ 임에게 가겠다고 비현실적 상황을 설정하여 임을 만나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40.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

(나)의 글쓴이는 ‘누가 불쌍히 여기고 누가 세상에 알리겠는가?’라고 말하며 죽은 외손녀에 대해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외손녀에 대해 아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몇 줄의 짧은 글을 ~ 너의 넋이 이를 알 것인가 모를 것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외손녀’는 ‘향초나 진주는 티끌처럼 여기고 비너나 ~ 부리’는 미운 습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므로 외손녀가 장신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외손녀’는 본받을 만한 충신과 열사들을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그들의 절개와 행실을 높이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41. [출제의도]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은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화자의 마음이 임에게 전해질 수 없게 한다. ㉡은 양 끝이 ‘뉘어 이어져’ 있고, 양 끝은 글쓴이와 외손녀를 의미하므로 글쓴이의 마음이 외손녀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가)에서 화자가 ‘황옥경에 올라가서 상제께’ 임의 죄를 아뢰겠다고 하는 것은 임이 마음을 돌려

다시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 임과의 이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여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① 천상의 ‘신선’이었던 화자는 임이 훔친 ‘복숭아’를 ‘주고받은’ 죄로 지상에 ‘귀양’을 오게 되었으므로 이 작품이 적당 화소를 차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② 화자가 ‘전생 모습 그대로’인 임을 ‘제주 땅’에서 다시 만났다는 것에서 천상에서 맺은 임과의 인연이 지상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글쓴이가 외손녀와 ‘화음동 골짜기’에 ‘함께 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외손녀에 대한 사별의 정한을 알 수 있다.

** 현대시 **

□ 출전 : (가) 정일근, 「주머니 속의 바다」
(나) 나희덕, 「속리산에서」

4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가)는 ‘불쑥’, ‘주섬주섬’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각각 마을 사람들이 주머니 속에 있던 바다를 꺼내는 모습과 선물로 주기 위해 바다를 챙기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 내고 있다.

44. [출제의도]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화자는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높이를 길게 길게 늘여서 자신 앞에 펼쳐주는 ‘속리산’을 오르며, 더 높이 오르는 삶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쉬지 아니하고 곧장.’이라는 뜻을 지닌 ‘단숨에’가 속리산을 오르며 깨달은 화자가 자신의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설마’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이라는 뜻으로, ‘마을 사람들’이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며 믿지 못하는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② ‘곱게’는 ‘곱다’의 부사형으로 ‘곱다’는 ‘그대로 온전하다.’라는 뜻이며, 화자가 ‘바다’를 그대로 온전하게 ‘접어’ 왔다는 것을 통해 바다를 소중히 여기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아직’은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화자가 여전히 높이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오히려’는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르게.’라는 뜻으로, ‘산을 오르’는 것보다 ‘산 아래’에서의 ‘하루하루’가 ‘더 가파른 고비’, 즉 더 힘겨운 것이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나)에서 속리산은 화자에게 ‘어깨를 낮추며’ 화자가 넘는 것은 ‘산이 아니라/산 속에 갇힌 시간’이라고 ‘속삭이’면서 산을 더 높이 오르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려 준다. 그러므로 속리산을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바다가 거대하다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바다를 ‘주머니에 넣’거나 ‘손바닥 위’에 ‘올려 놓’을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바다의 모습을 ‘흰 손수건’과 ‘하얀 갈치 떼’로 비유하여 바다를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바다를 ‘사람과 함께 눈뜨’고 ‘잠’든다고 표현하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다.